

한 군데 모아 놓은(김윤식 1987: 61), '이상' 시학에 대해 우리는 벤야민의 알레고리의 시학이라는 틀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앞에서 내세운 바 있다. 알레고리의 작품은 파편들의 무질서해 보이는 회집물(會集物) 가운데 별자리처럼 떠오르는 이념을 찾아내는 비평과 짝을 이룰 때에만 그 본질을 열어 보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그 이념은 파편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됨으로써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파편들이 그저 파편으로서 모여 있음으로 해서 떠오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감도 시제1호」를 비평하는 자가 찾아내야 하는 이념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알랭 바디우의 다음의 서술을 음미해 보자.

주체는 무엇인가가 일어났기를, '이미 주어진 것' 속의 그 일상적 기입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일어났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잉여적 부가물을 사건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진리가 문제삼아지지 않는(오직 의견만이 문제삼아지는) 다양태적 존재를 사건과 구분하자.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사건적인 잉여적 부가물의 관점에서 상황에 관계하려는 결정으로부터이다. 이를 충실성이라고 부르자[...]. 1905년 아인슈타인의 텍스트들 이후로, 만약 내가 그 텍스트들의 근본적인 새로움들에 충실하다면, 나는 물리학을 고전적 틀 속에서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한 충실성의 실제적 과정을 '진리'(하나의 진리)라고 부른다(Badiou 2001: 54-56).

앞서 논의한 바, 이상은 그 존재 자체로서 제도 예술의 영역 내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산출한다. 따라서 '이상'은 근대적 제도 예술에 있어서 잉여적 부가물이며 따라서 하나의 '사건'으로 규정된다. 사건으로서의 '이상'은 근대 문학이라는 제도 내에서 발언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기를 요구한다. 기존의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적인 것만이, 제도의 행로에 따르던 자, 다시 말해 여태껏 주체였던 적이 없던 자로 하여금 주체가 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을 주체로서 세우려는 충실성을 견지할 때, 바디우는 진정한 인간적 차원으로서의 윤리적 충위가 개시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한국 근대 문학에서 ‘이상’이라는 존재는 그를 대면하는 윤리적 주체들로 하여금 한국 근대 문학 자체를 다시 사유하도록 하는, 즉 한국 근대 문학의 존재론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건인 셈이다. ‘이상’의 아방가르드 시학에서 현재의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이념은 바로 한국 근대 문학에 대한 존재론에의 요구, 그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2003), 『이상평전』, 향연, 서울.
- 권영민(1998), 「이상문학 60년, 새로운 형식의 물음을 찾아」, 권영민 편,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서울, 6-7.
- 김상환(1998), 「이상 문학의 존재론적 이해: 존재사적 문맥화 작업과 타당성 검증」, 권영민 편, 『이상 문학 연구 60년』, 문학사상사, 서울, 133-164.
- 김승희(1992), 「이상 시 연구: 말하는 주체와 기호성의 의미 작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김연수(2001), 『굳빠이, 이상』, 문학동네, 파주.
- 김용직 편(1977), 『이상』, 문학과지성사, 서울.
- 김윤식(1987),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서울.
- 김주현(1999), 『이상 소설 연구』, 소명, 서울.
- 박현수(2002), 「이상 시의 수사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형철(2006), 「이상 시에 나타난 시선(視線)의 정치학과 거울의 주체론」, 신범순 외,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역락, 서울, 269-313.
- 안성찬(2004), 『송고의 미학: 파괴와 혁신의 문화적 동력』, 유로서적, 서울.
- 오세영(1996), 『한국 근대문학론과 근대시』, 민음사, 서울.
- 이경훈(2000), 『이상, 철천의 수사학』, 소명, 서울.
- 이상(1991-2001), 『이상문학전집』 1-5권, 이승훈·김윤식 편, 문학사상사, 서울.
- _____ (2005), 『정본 이상문학전집 1권: 시』, 김주현 편, 소명, 서울.
- 이진우(1993), 『오감도』, 문학세계사, 서울.

- 조영복(1997),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서울.
- 진중권(2003), 『현대미학 강의: 승고와 시플라크르의 이중주』, 아트박스, 서울.
- 최재서(1938), 『문학과 지성』, 인문사, 경성.
- 최혜실(1992),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민지사, 서울.
- Badiou, A.(2001), 『윤리학』, 이종영 역, 동문선, 서울.
- Benjamin, W.(2005), 『아케이드 프로젝트』 1-2권, 조형준 역, 새물결, 서울.
- _____ (1983), 『발터 벤야민의 문예이론』, 반성완 편역, 민음사, 서울.
- _____ (1980), 『현대사회와 예술』, 차봉희 역, 문학과지성사, 서울.
- Bolz, N. et al.(2000), 『발터 벤야민』, 김득룡 역, 서광사, 서울.
- Buck-Morss, S.(2004), 『발터 벤야민과 아케이드 프로젝트』, 김정아 역, 문학동네, 파주.
- Bürger, P.(1986), 『전위예술의 새로운 이해』, 최성만 역, 심설당, 서울.
- Calinescu, M.(1994),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이영옥 외 역, 시각과언어, 서울.
- De Man, P.(1983), "The Rhetoric of Temporality", *Blindness and Insight: Essays in the Rhetoric of Contemporary Critic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87-228.
- Gilloch, G.(2005),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노명우 역, 효형출판, 서울.
- Hewitt, A.(1993), *Fascist Modernism: Aesthetics, Politics, and the Avant-Gard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obsbawm, E.(2001), 『아방가르드의 쇠퇴와 몰락』, 양승희 역, 조형교육, 서울.
- Lyotard, J. F.(1993), 「승고와 아방가르드」,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역, 문예출판사, 서울, 153-189.
- Poggioli, R.(1996), 『아방가르드 예술론』, 박상진 역, 문예출판사, 서울.
- Tzara, T. et al.(1987), 『다다쉬르레알리즘 선언』, 송재영 역, 문학과지성사, 서울.

원고 접수일: 2007년 3월 15일

게재 결정일: 2007년 5월 21일

ABSTRACT

Yi Sang's Avant-Garde Poetics:
Toward Ontological Inquiry into Modern Korean Literature

Choe, Hyonhui

Yi Sang, usually elected as the most significant figure in modern Korean literature, has been provoking major controversy over how academics in the field evaluate the essence of his texts. If one takes a glance at development of discourse on Yi's literature, it is easily found that the discursive process always tends to occur beyond the borderlines of body of the field: academic discipline of modern Korean literature. In this paper, I hypothesize that the substantial part of the event called Yi Sang is the avant-garde poetics and this feature results in the transcendence observed in the discourse on him.

According to Peter Bürger's theory, avant-garde is not the one possible form categorized under aesthetic modernism but the superior form of modernist arts. The term "avant-garde" means the most advanced guard in its literal sense; avant-garde artists attempt to become the spearhead of modern arts. In other words, they want to stand on the very verge of the territory occupied by arts in modern world, and this intention leads to the fundamental, subversive reflection of the status of the idea of arts in the modern. Avant-garde artists, therefore, try to put the idea of allotted area where arts can stay into question because, in the discourse of the modern,

arts become fully autonomous from the society.

After rereading Yi Sang's essays and his letters to Kim Kirim, I concluded Yi perceived that truly modern literature should stand on the self-referring reflection. Even though this perception is quite vague, this avant-garde view on arts become obvious because he performs particular application of this logic through creating and publicizing a truly avant-garde poem, "Ogamdo: Si Che Il Ho [Crow's-Eye View: Poem No. 1]". Because avant-garde works are created by the intention to put the autonomy of arts into question, they are outside the supposed self-sufficiency of works of art. When one tries to read "Ogamdo: Si Che Il Ho" in the light of the given idea, she necessarily fails to find out what the poem truly means. The work forces not to find its hermeneutic meaning but to reconsider the putative concept of art.

This message constitutes the essence of Yi Sang's avant-garde poetics. With this poetics, Yi becomes the event who provoke ontological questions among his readers in modern Korean literature. Through Alain Badiou's contemplations on ethics, the event has ones who wants to remain faithful to it face their ontological status.

